# 한국축구 동아시안컵 3연패 도전

## 벤투 감독, 5일 울산서 대표팀 소집
## "새로 합류한 선수들 좋은 모습 기대"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하 동아시안컵)을 앞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좋은 경기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최초의 '3회 연속 우승' 등 기록은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투 감독은 동아시안컵에 대비해 대표팀이 소집된 5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엔 우리와 꾸준히 함께 한 선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했거나 처음 발탁된 선수도 있다"면서 "이들이 팀에 잘 녹아들도록 해 잘할 수 있는축구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3회 연속 남자부 우승에 도전한다.

201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최종전에서 일본을 격파하고 정상에 올라 남자부 최초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데 이어 3연패까지 노린다.

최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연이어 무득점 무승부에 그치고,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선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최다 실점(3골) 패배를 기록하는 등 다소 주춤했던 대표팀이 분위기를 끌어 올릴 절호의 기회다.

벤투 감독은 "어느 대회든 좋은 결과를 위해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도 "저에게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건 팀이 어떻게 더 발전하느냐다. 그러면서 결과와 대회 3연패 같은 좋은 기록을 만들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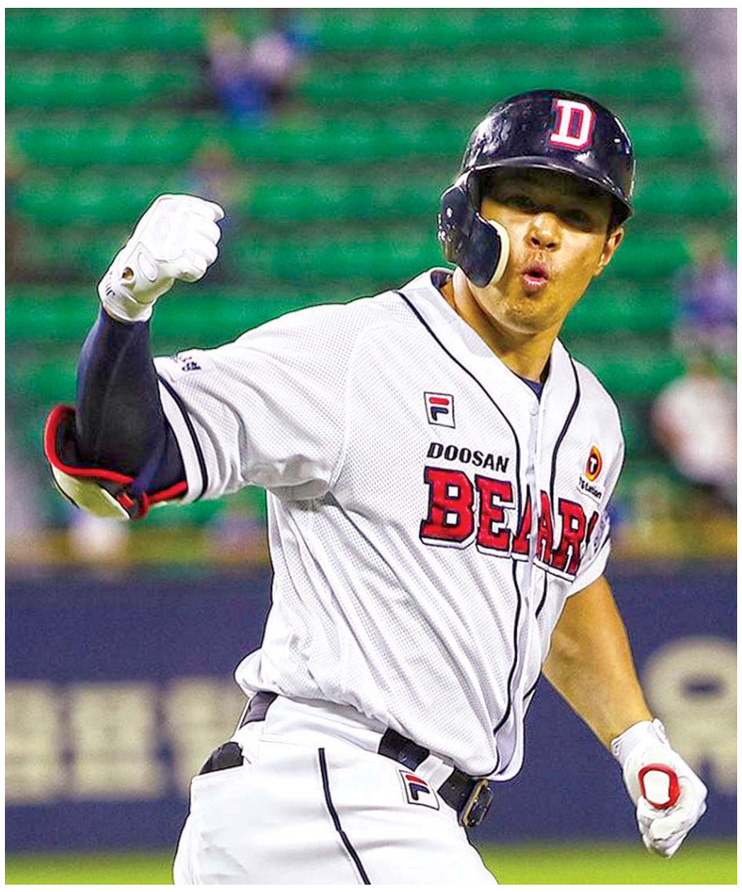
이어 득점난 해소에 대해선 "지난 경기들과 이번 달 선수 구성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벤투 감독의 고민은 해외파가 합류하지 못해 선수 구성이 달라졌다는 것 외에 K리그 등 시즌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체력이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이 5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이날 동아시안컵에 대비해 대표팀을 소집했다. 연합뉴스

그는 "선수들이 긴 시즌을 마치고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합류했고, 훈련 기간도 길지 않아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팀들도 평소와 선수 구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상대에 관해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하다"면서 "상대에 대한 대비는 대회를 치르면서 선수 면면을 보며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두산 김재환, 메이저리그 도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거포 김재환(31·사진)이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린다.

두산은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김재환에 대한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재환은 수년 전부터 메이저리그 진출에 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출전으로 포스팅 신청에 필요한 출전 일수를 채웠고, 프리미어12 종료 후 구단에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를 알렸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프리미어12 대회 이후 김재환의 에이전트와 몇 차례 논의한 끝에 그의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환은 구단을 통해 "아직 어떤 구단이 관심 있을지, 어떤 정도의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다"며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할 기회가 온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시 마감기한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까지다. 단 하루 동안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두산 관계자는 "워낙 시간이 부족해 걱정이 많다"면서도 "에이전트 측에서 관련서류를 모두 준비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2008년 두산을 통해 프로 무대를 밟은 김재환은 한 팀에서 중심타자로 맹활약했다.

2018시즌엔 139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4, 44홈런, 133타점을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상(MVP)을 받기도 했다. 올 시즌엔 136경기에서 타율 0.283, 15홈런, 91타점으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다.

한편 김재환은 일본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과정을 진행했던 미국 대형 에이전트사 CAA 스포츠와 손잡았다. 연합뉴스

# 제주 복싱 기대주들 전국대회 맹활약

## 중등부 김주현·서수호 1위

김주현

서수호

제주 복싱 기대주들이 전국 대회에서 활약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복싱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충북 충주체육관에서 열린 2020 유스 및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대회 겸 2019 전국종별신인복싱선수권대회에서 김주현(제주제일중), 서수호(제주서중)가 정상에 올랐다.

중등부 -70kg급에 출전한 김주현은 이찬녕(세종복싱클럽)을 상대로 3라운드 기권승을 거두며 1위를 차지했다. -75kg급 서수호는 결승전에서 최준호(진해중)에게 판정승을 거두며 우승을 안았다.

-80kg급 김성수(한림중)는 허동현(학남중)과 붙어 아쉽게 판정패를 당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38kg급 김민창(한림중)과 -70kg급 조현빈(서귀포시스포츠클럽), -54kg급 최수혁(서귀포시스포츠클럽)은 3위에 올랐다.

고등부에선 -56kg급 윤정빈(남녕고)과 -91kg급 조현규(남녕고)가 결승전에 올랐지만 아쉽게 판정으로 져 2위를 차지했다. 김지은기자

# UFC 정찬성- 오르테가 대결 무산

## 오르테가 부상… '부산 대회' 출전 불발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의 부산 대회에서 메인이벤트를 장식할 예정이었던 '코리안 좀비' 정찬성(32·코리안좀비MMA)과 브라이언 오르테가(28·미국)의 맞대결이 무산됐다.

UFC 부산 대회의 이벤트 프로모터인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는 5일 오르테가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발됨에 따라 UFC와 대체 선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부산(이하 UFN 부산)' 메인 이벤트에서 정찬성과 주먹을 맞댈 상대가 누구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체 후보로는 지난해 11월 정찬성과 맞대결이 예정됐으나 부상으로 만나지 못했던 프랭키 에드가,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를 제압했던 제러미 스티븐스 등이 거론된다.

둘 다 국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선수들이지만 UFC 페더급 랭킹 2위인 오르테가(8전 6승 1패 1무효)와 비교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UFN 부산 대회 관계자는 "오르테가 만큼의 재미를 선사할 대체 선수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방에서 열리는 UFC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미국 전지훈련 중인 정찬성은 7일 귀국할 예정이다.

UFN 부산에는 정찬성 외에도 최두호, 강경호, 마동현, 정다운, 박준용, 최승우 등 코리안 파이터들이 대거 출전한다.

또 라이트헤비급 랭킹 8위 볼칸 외즈데미르와 10위 알렉산더 라키치, 플라이급 4위 알렉산드레 판토자와 9위 맷 슈넬 등 톱 10에 드는 파이터들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 손흥민 7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실패

## 토트넘, 맨유에 1-2 패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치른 '모리뉴 더비'에서 득점포 가동에 실패하면서 7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달성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유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원정에서 마커스 래시퍼드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1-2로 패했다.

토트넘이 무득점 패배를 당하면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최근 6경기 연속으로 이어졌던 손흥민의 연속 공격포인트 행진도 7경기에서 멈췄다. 연합뉴스